[글로벌] UN SDSN, '2018 세계행복지수' 결과 발표

황미진[1)]

1 주요내용

■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(이하, UN SDSN)는 전 세계 156개국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한 '2018 세계행복보고서(World Happiness Report)'를 발표

- UN 행복지수는 '소득 수준(1인당 GDP)', '건강 기대수명', '사회적 지원(복지)', '선택의 자유', '부패에 대한 인식', '사회의 너그러움·관용' 등을 기준으로 국가별 행복도를 측정하여 산출

  ※ UN이 정한 '세계 행복의 날(3.20)'에 맞춰 UN SDSN은 세계행복보고서(World Happiness Report)를 발표하며, 각국의 행복지수를 비교·평가하여 사회발전과 공공정책의 목표가 국민 행복 및 웰빙 증진에 있음을 국제사회에 확산

- 금번 보고서는 글로벌 난민·이민자 문제를 반영, 117개국 이민자의 행복지수를 처음으로 산출

■ 2018년 한국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.875점으로 나타나 57위를 기록, 2017년(5.838점, 55위) 대비 점수는 상승한 반면 행복 순위는 다소 하락

- 2018년 보고된 순위는 최근 2년간(2015~2017) 조사한 결과로, 행복지수 순위(Ranking of Happiness 2015-2017)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(7.632점, 1위)로 나타남. 이어서 노르웨이(7.594점, 2위), 덴마크(7.555점, 3위), 아이슬란드(7.495점, 4위), 스위스(7.487점, 5위), 네덜란드(7.441점, 6위), 캐나다(7.328점, 7위), 뉴질랜드(7.324점, 8위), 스웨덴(7.314점, 9위), 호주(7.272, 10위) 순으로 집계됨
- 독일은 6.965점으로 15위, 미국은 6.886점으로 18위, 영국은 6.814점으로 19위, 일본은 5.915점으로 54위를 차지하였고, 한국은 5.875점으로 57위(2017년 5.838점, 55위)를 기록
- 이민자 행복지수 또한 핀란드(1위), 덴마크(2위), 노르웨이(3위)에서 높게 나타났으며, 멕시코의 경우 국가 행복지수(6.488점, 24위) 대비 이민자 행복지수(7.031점, 10위)가 높은 특징

2 시사점

■ UN 행복지수는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, 객관적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평가로 측정되고 있음

■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생활 여건 만족, 문제 경험 등을 측정 분석하는 '한국의 소비생활지표'를 2년 주기로 산출하는 바, 한국인의 소비생활을 조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지표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, 다문화·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소비생활상 진단에 유용한 항목 보완 등을 검토할 필요

1)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 선임연구원(mjwh@kca.go.kr)

505e0c50-26a8-407d-a3ee-ecd66e9e6cb2

자료인용 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.

[원문정보]

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(SDSN) http://unsdsn.org/

John F. Helliwell, Richard Layard and Jeffrey D. Sachs(2018.3), World Happiness Report,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(SDSN)

연합뉴스(2018.3.15.), "한국, 세계행복지수 156개국 중 57위"…핀란드 1위
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8/03/15/0200000000AKR20180315003700109.HTML